

03

중미관계와 ‘일대일로’의 정치경제:
달러패권에 대한 취약성 극복을 중심으로*

朴 鴻 緒

강원대학교 시간강사

hongseo@hanmail.net

-
- I. 서론
 - II. 미국의 달러 패권과 중국의 개혁개방
 - III. 일대일로 구상의 정치경제
 - IV. 결론 및 전망
-

* 본 논문은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소 주최 소규모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논문입니다.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부산대학교 차창훈 교수님과 본지의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국문초록

본 논문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달러 패권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이라고 설명한다.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후 미국은 자국의 안보능력을 활용해 소위 '신브레튼우즈 체제' 속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강화해 왔다. 미국은 일본을 위시로 하는 동아시아 산업국가들에게 대규모 무역적자를 감내하는 대가로 그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에 재투자하게 해 자국 경기를 부양해 왔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역시 신브레튼우즈 체제에 편승한 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발전 전략은 달러 경제권에 대한 중국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아래 수출시장의 다변화, 내수 진작 및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달러 패권을 극복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일대일로의 성공 여부는 중국이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문화 영역에서 타국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핵심용어 : 일대일로, 미중관계, 신브레튼우즈 체제, 달러 패권, 위안화 국제화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시진핑 정부가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구상'(이하 일대일로)을 중국의 대미 경제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이 달러 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내수진작, 수출시장 다변화,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를 도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달러 패권'을 극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카자흐스탄 및 인도네시아 방문중 '실크로드 경제권(丝绸之路经济带)'과 '해상 실크로드(海上丝绸之路)'의 건설을 주창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중국은 일대일로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지정학적 전략이 아님을 강조한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가 냉전 초기 미국의 마셜 플랜(The Marshall Plan)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셜플랜이 친소 국가들을 배제한 채 수행된 미국의 패권 전략의 일환이라면, 일대일로는 평화, 개방, 포용, 상호신뢰, 그리고 상호이익의 정신에 기반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모두 포괄하는 '공동번영' 구상이라는 것이다. 즉, 일대일로는 '친·성·혜·용(親·誠·惠·容)'이라는 중국의 주변외교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간 '운명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교 부장 왕이는 일대일로를 중국의 '독주국'이 아닌 국가간 '교향곡'이라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环球网 2016; 新华网 2015; 冯宗宪 2014).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정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는 현실적인 국가이익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Swaine 2015, 47-48). 학계에서는 주로 지정학적 맥락에서 일대일로를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이해하는 논의들이 존재한다. 쉘에리(薛力 2015)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일본의 보통

국가화,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 그리고 중국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우려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① 대미관계 관리, ② 해상 실크로드 통로 건설, 그리고 ③ 유라시아의 상호 연결 체계 구축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주변 소국 및 카자흐스탄,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와 같은 지역 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대일로 이전에도 대미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서진전략’을 모색해야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이남주 2015, 40-43). 예를 들어, 류야저우(刘亚洲 2010)에 따르면, 동부 연해지구가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전략에 취약한 것과 달리 서부 지역은 유리한 안보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에너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왕지스(王缉思 2012)에 따르면, 중국은 서진전략을 통해 오히려 대미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과 달리 중앙아시아에서는 반테러리즘, 비확산, 지역안정, 에너지 문제 등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일대일로의 수립 및 그 추진과정에 있어 ‘미국 변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합리적 사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월츠(Waltz 2010, 88-101)가 설명하듯, 국제정치가 ‘무정부상태(anarch)’ 라면 대외전략 수립에 있어 국가들이 고려해야할 최우선 대상은 국가간 세력관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초강대국 미국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들 분석과 같이 중미관계의 맥락에서 일대일로를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그동안 다양하게 제기되어왔다. 이들 연구는 주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일대일로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라고 설명하거나, 미국의 대중 견제를 우회해 주변외교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한다. 미국이 안보적으로 지역동맹체제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는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을 통해 중국견제에 나서고 있

는 상황에서 일대일로를 이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이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서정경 2015; 원동욱 2015; 김애경 2016; 郝晓伟·陈侠 2015).

본 논문은 일대일로를 지정학이나 세력균형의 관점이 아니라 달러 경제권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라는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핵무기의 등장으로 강대국간 전쟁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간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과 그것을 둘러싼 경쟁은 그만큼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Waltz 1993, 59). 특히,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의 이윤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을 둘러싼 강대국간 경쟁이 보다 첨예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¹⁾

본 논문은 2장에서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달러 패권 전략을 설명하고 이에 편승한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달러 패권에 대한 중국경제의 취약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일대일로가 가지는 정치경제적 함의를 설명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일대일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간략히 시도한다.

II. 미국의 달러 패권과 중국의 개혁개방

1. 신브레튼우즈 체제와 미국의 '안보-달러' 연계 전략

상술한 바와 같이, 2차 대전 이후 핵무기의 등장은 강대국간의 전쟁 효용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국가들로 하여금 논 제로섬

1) 니얼퍼커슨(2010, 10-11)에 따르면, 2006년 전세계 경제 산출량이 약 47조 달러임에 반해 주식, 채권, 금융 파생상품을 총합한 금융자산의 총액은 592조 달러에 달해 실물 경제 산출량은 금융 자산의 7%에 불과하다.

(non-zero sum)적 성격인 경제영역에서 보다 경쟁적인 행태를 보이게 하였다. 냉전기 미국으로서도 소련과의 전쟁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달러 패권의 유지·강화가 최우선의 전략 목표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1944년 수립된 브레튼우즈 체제를 이용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은 금 1온스를 35달러에 고정시키고, 기타 국가의 화폐 가치는 달러와 연동시키는 금-달러 본위의 고정환율제라 할 수 있다. 기타 국가들은 금을 여전히 국제통화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금의 주요 생산국이 소련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금의 보유보다는 그와 동일한 가치로 인정된 달러를 매입해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자국의 금보유량 한도내에서 달러를 주조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결국 미국은 필요한 경우마다 달러를 주조해 사용할 수 있는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을 가지게 된 것이다(배리 아이켄그린 2011, 82).

국제통화질서에서 달러가 지배적 위상을 확보하게 된 제도적 배경에는 1913년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설립이 존재한다. 미 달러화는 1912년 미국이 세계최대의 무역국으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부재 및 금융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파운드화와 같은 국제통화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의 설립으로 달러화에 대한 체계적 발행 및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에 기초해 대외적 유동성이 확장됨으로써 달러화에 대한 국제적 신용도가 제고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달러 패권을 확립시킨 정치적 배경에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미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급속히 강화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각국은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 환어음을 남발함으로써 그들 국가의 통화가치가 하락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전시경제의 활황으로 미국은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변모하였으며, 이를 기

반으로 달러를 금과 확고하게 연동시킴으로써 달러의 위상이 강화되었다(Prasad 2014, 16; 배리 아이켄그린 2011, 54-60). 더욱이 미국은 세계 대전에 개입해 독일 및 일본의 위협을 무력화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함으로써 그러한 문제해결 능력을 결여하였던 영국을 대신해 새로운 패권국가로 등장하였다.

스트레인지(Strange 2015, 27-37)에 따르면, 한 국가가 타국의 행동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소위 '구조적 힘(structural power)'을 보유한다. 즉, 구조적 힘을 가진 국가는 안보, 생산, 금융, 지식 영역 등에서 타국이 준수해야 할 규범과 규칙을 설정하는 힘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 영역에서의 우월한 능력은 다른 영역에서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속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우월한 안보 능력을 가진 국가는 생산이나 금융 영역에서도 자국에 유리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44년 수립된 브레튼우즈 체제는 미국의 구조적 힘에 기반한 국제경제체제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유럽 및 일본의 전쟁 복구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들 국가들을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줌으로써 브레튼우즈 체제를 유지 강화하였다. 서방 진영의 중앙은행들과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구조적 힘을 가지는 미국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달러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었던 것이다(배리 아이켄그린 2011, 228-229; 한영빈 2012, 311).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달러가 여전히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능력이 여전히 건재했다는 사실이 있다. 1960년대 베트남전의 전비 확충을 위해 금보유 한도 이상으로 달러 발행이 급증되자, 닉슨 행정부는 금-달러 태환을 철회하고 브레튼우즈 체제를 붕괴시키기에 이른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가 달러 패권의 종결을 의미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

리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은 약화되지 않았다. 미국은 달러의 금태환을 ‘달러-안보 연계(Dollar-security nexus)’ 전략으로 대체함으로써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대소련 견제라는 자국의 안보 제공 대가로 서독 및 일본과 같은 하위동맹국들에게 달러 가치를 부양하게 하고, 아울러 대내외적 안보위협에 직면하던 중동국가들을 지원하는 대가로 석유의 달러화 결제를 유도하였다(Hung 2013, 1345). 즉,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를 통해 달러의 금태환을 달러의 ‘안보태환’으로 변화시켰던 것이다.

미국의 달러-안보 연계 전략은 냉전 붕괴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특히, 미국은 달러 패권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대항하려는 주체들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수단을 통해 견제하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석유 결제대금을 달러에서 유로화로 변경하려던 이라크 후세인 정권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을 나토라는 군사동맹 구조에 묶어둠으로써 미국에 대항할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유럽의 등장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금융 중심지를 모색하던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압력 역시 그 사례라 할 수 있다(데이비드 하비 2016, 89-90; 한영빈 2012, 316). 사실, 냉전 붕괴로 인해 대외적 안보 위협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미국의 국방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그것이 달러 패권 유지와 같은 경제적 이익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²⁾

동일한 맥락에서,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역시 달러 패권의 유지·강화라는 목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역외 균형자로서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 및 지역 약소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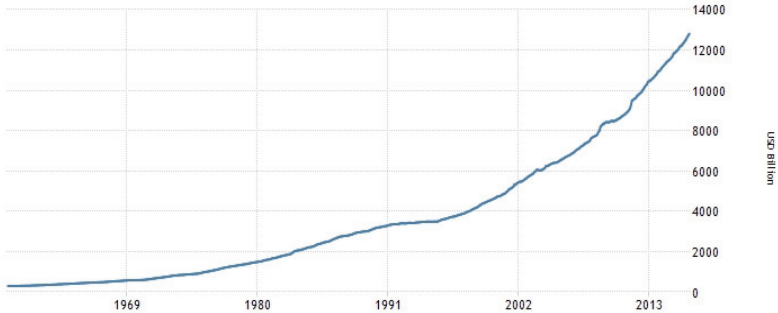
2) 미국의 국방예산은 2015년 현재 5,960억 달러로 그 이하 7개국(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영국, 인도, 프랑스, 일본)의 국방예산 총합보다도 많다(SIPRI 2016; Norloff 2014, 1047/ 1051).

들에게 안보를 보장해 주고 그 대가로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 자본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합리적 동인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북핵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타이완 문제 등 지역 안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동 문제들에 대한 중재자로서 자국의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을 달러 세력권으로 묶어 두려는 전략적 사고의 결과라 할 수 있다(Stokes 2014, 1085-1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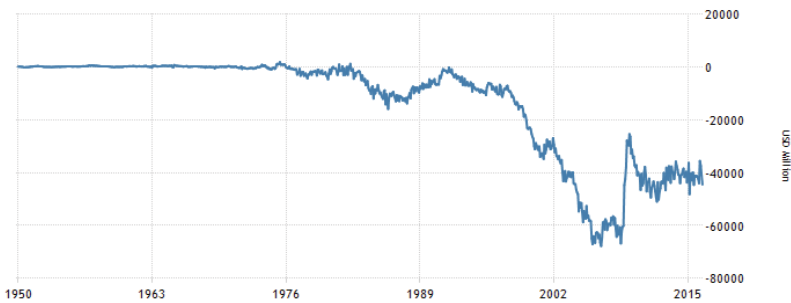
한편,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경제 영역에서 미국이 구사한 달러 패권 전략은 주로 금융자유화 및 자본 수출을 확대해 달러의 국제적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는 달러 발행을 제약하는 금태환 의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기술적으로 달러를 무한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림 1>은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미국의 자본 유동성이 급증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은 자본 수출을 통해 해외자산을 매입한 다거나 우월한 정치력을 동원해 달러를 중동산 석유 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달러의 국제적 유동성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금리 인상 조치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달러를 미국으로 환류시켜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시작하였다(레이쓰하이 2014, 69-84).

달러의 국제적 유동성을 확대해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제조업 부분의 경쟁력 약화라는 상황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기도 하였다. 1960년대 전후 복구를 완수한 서독 및 일본은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강화함으로써 동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산업자본에서의 손실을 금융자본의 이익 증대로 만회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하였던 것이다(데이비드 하비 2016, 72-74).

<그림 1> 미국의 M2(총통화) 증가량³⁾



<그림 2> 미국의 무역수지 현황⁴⁾



<그림 2>에서 나타나듯, 미국은 1970년대 이후 독일과 일본, 그리고 이후 한국, 타이완 등의 동아시아 신흥 산업국들에 대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감수하였다. 아울러 그 대가로 그들이 미국시장으로부터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에 재투자하게 해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경제를 부양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제조업 강국들 역시 경제발전에 사활적 기반인 대미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달러화 자산에 투자해 자국의 환율을 낮춰야할 합리적 동인이 있었다. 미국-동아시아 산업

3) <http://www.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money-supply-m2>

4) <http://www.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alance-of-trade>

국들간 이러한 경제적 상보구조인 '신브레튼우즈(revived Bretton Woods/Bretton Woods II)' 체제는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달러 패권을 유지 강화시킨 핵심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8년 미국 금융 위기 초기 달러화 자산의 투매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미국 자산의 국제적 수요가 증폭되었다는 사실은 신브레튼우즈 체제의 견고함을 방증하기도 하였다. 동아시아 산업 국가들로서는 자국 경제가 대미 시장에 긴밀히 연동되어 있는 만큼 달러화 자산 매입을 통해 미국경제를 부양하고, 아울러 자국 환율을 하락시켜 대미 수출을 신장시키려는 합리적 동인이 있었던 것이다(Dooley 외 2009; 백창재·조형진 2012, 303-312).

2. 중국의 달러 경제권 진입과 개혁개방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선포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미중관계 개선 및 정상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개혁개방 정책 역시 마오쩌둥 시기의 대약진 운동과 같이 국가주도의 경제 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 방식은 상반되었다. 대약진이 농민의 노동력을 이용한 자력갱생적 발전전략이었다면, 개혁개방은 미국 주도의 국제 자본에 기반한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박홍서 2009, 74). 즉, 중국의 개혁개방은 신브레튼우즈 체제로의 진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 1979년 국교정상화, 그리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소련 견제라는 공동목표를 매개로 해 미국의 달러-안보 연계 전략을 중국이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베트남전 패착이 방증하는 '과잉팽창'을 축소하고 그로 인한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공백을 중국을 통해 보완하려는 전략적 사고 속에서 대중국 접근을 모색하였다. 길핀(Gilpin 1981, 192-193)이 설명하듯이, 과잉팽창으로 재정 위기에 직면한 패권국가는 차상위 강대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위협국가를 견제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 실제로 1969년 ‘닉슨 독트린’은 동아시아에서의 군사력 축소와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소련을 견제하려는 지정학적 전략의 일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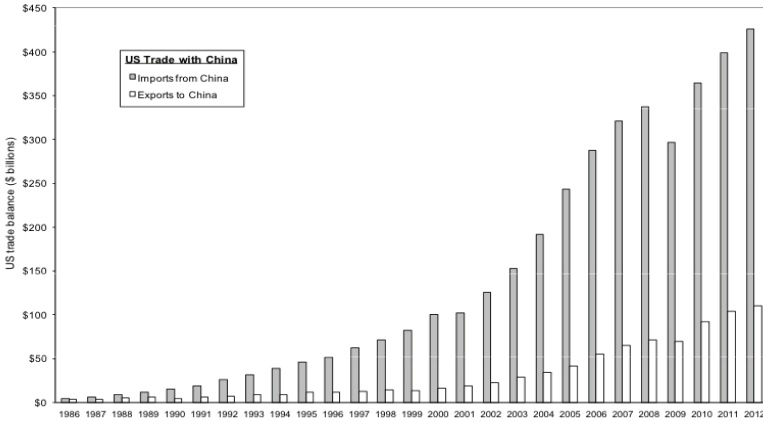
중국으로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소련의 위협을 견제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이었다. 1960년대 전 반을 걸쳐 중국은 미소 양 강대국으로부터 모두 고립된 최악의 안보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중간지대론’을 내세우며 제 3세계 국가들과의 연대를 도모하기도 하였으나, 1969년 진보도 무력 충돌 등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이 극대화되자 적극적으로 대미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다. 특히, 1970년대 중반이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으로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되자 미중관계는 대소 ‘유사동맹(quasi-ally)’ 수준으로까지 격상되기도 하였다(Kissinger 2011, 275-293; 박홍서 2009, 79-81).

이러한 맥락에서, 개혁개방기 중국이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방식과 유사하게 달러 경제권에 진입하고, 대미 시장을 근간으로 한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한 것은 합리적인 전략이었다. 즉, 중국 역시 대소련 견제라는 미국의 안보지원을 ‘구매’하는 대가로 달러의 패권적 지위를 부양하는 신브레튼우즈 체제의 논리를 수용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대미 관계정상화 이후 중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1983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2015년 현재 미중간 총무역 규모는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5,981억 달러로 미중 양국 모두 상대방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특히, 중국의 대미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4,819억 달러와 1,162억 달러에 달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657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中国商务部 2016).⁵⁾ <그림 3>은 미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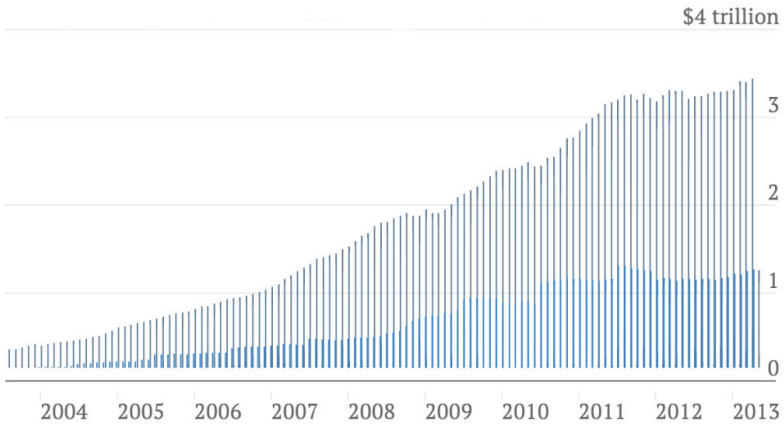
5) 미국 통계국의 자료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2015년 미중 총 무역액은 5,992억 달러이며, 이중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액은 3,671억 달러이다(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6).

교 이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증폭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림 3> 미중 무역 수지⁶⁾



<그림 4> 중국의 외환보유액 및 미 국채 보유액(각각 위아래 선)⁷⁾



6) <http://www.businessinsider.com/chart-us-trade-deficit-with-china-2013-4>

7) <http://qz.com/102021/why-chinas-slowdown-could-be-really-great-for-america/>

결국 이러한 상황은 현재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신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 구성국이 되었음을 시사한다(백창재·조형진 2012, 312-313). <그림 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중국은 현재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외환 보유국이 되었으며, 이를 다시 미국 채 매입에 재투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사활적인 미국 소비시장을 부양하고, 아울러 위안화 환율을 지속적으로 절하시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6년 5월 현재 3조 1,917천억 달러이며, 미 재무부 채권 매입총액은 1조 2,400억 달러(미 채권 총액의 20%)로 각각 세계 최대 보유국이다(国家外汇管理局 2016; US Department of Treasury 2016).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2012, 282-336)은 미중 양국의 이러한 경제적 상보관계를 ‘차이메리카(Chimerica)’ 개념으로 요약하고 있기도 하다.

경제발전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중국에게 안정적인 미국 시장은 궁극적으로 공산당 일당 통치라는 대내 정치적 차원에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마오쩌둥 시기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이념에 의거해 통치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면, 개혁개방기 중국 공산당은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통치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다면, 중국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의 침체는 중국 경제의 불안정과 이로 인한 사회 분규를 초래해 공산당의 통치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 중국의 대미 수출량이 급락하고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대량 실업 사태로 인해 사회 불안정이 조성되기도 하였다(Kam Wing Chan 2010, 666-670).

물론,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 등과 같이 미국의 하위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달리 환율절상 등의 문제에 관해 미국의 요구에 ‘그대로’ 순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즉, 중국으로서는 소련의 위협이 소멸된 탈냉전시기 미국의 달러-안보 연계 전략을 수용할 합리적 동인이 상대적으로

로 약한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① 대미 수출지향형 경제, ② 내수 미비, ③ 국내저축이라는 경제구조의 심화와 아울러 경제발전의 핵심 수혜자인 도시기반 관료 및 산업엘리트들이 그러한 구조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중국이 현재의 신브레튼우즈 체제의 논리로부터 급속히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흥(Hung 2013, 1350-1351)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동아시아 신흥 공업국들에 비해 오히려 신브레튼우즈 체제의 논리를 더욱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미국의 달러-안보 연계 전략이 중국건제에 이용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나 북핵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동맹국 및 역내 국가들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달러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다면, 중국으로서는 자국이 현상타파적 외교행태를 보일 경우 '중국위협론'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주변국가들의 대미 편승 가능성을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중국이 주창하는 '화평발전론'과 미국과의 공생을 강조하는 '신형대국관계론'은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암시하기도 한다(人民网 2015).

Ⅲ. 일대일로 구상의 정치경제

1. 중국의 對달러 취약성

신브레튼우즈 체제로의 진입은 개혁개방기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그만큼 중국의 대미 취약성이 심화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 경제의 침체나 미중간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국 경제가 그만큼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월츠(Waltz 2010, 138-160)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국제정치에서 국가간 상

호의존 개념은 ‘취약성(vulnerability)’ 개념으로 바꾸어 이해될 수 있다. 국가간 상호의존은 힘의 격차에 따라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의존이 붕괴될 때 각국이 감수해야할 손실 역시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호관계에서 덜 의존적인 국가는 보다 큰 자율성을 가지며 그 결과 상대국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미중 양국간 상호 수출이 각각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의 대미취약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2015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162억 달러로 미국 GDP(17조 9,469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5%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4,819억 달러로 중국 GDP(10조 8,664억 달러)의 4.4%에 달한다.⁸⁾ 따라서, 정치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중간 무역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 미국에 비해 그만큼 심각한 손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3,657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고객’으로서의 특권 역시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미국은 각종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 중국산 수입물을 통제하거나, 유럽,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량을 늘려 대중 압력에 나설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금융 영역에서 중국 경제의 대미 취약성은 제조업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신브레튼우즈 체제속에서 미국은 금융위기를 대외적으로 ‘수출’함으로써 달러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행태를 보여 오고 있다. 미국은 정치 경제적 압력 등을 통해 개도국들의 금융시장을 개방토록 유도하고, 달러자본을 대규모로 유입시켜 달러 유동성에 대한 해당 국가의 취약성을 증대시킨다. 만약 해당 국가의 경기가 불안정해지거나, 달러화에 대한 금리 인상, 그리고 보다 매력적인 달러 투자국이 생긴다면, 해당 국가에 투자된 달러자본이 급속히 유출됨

8) 미중 양국의 GDP는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GDP-ranking-table> 참조.

으로써 외환 위기가 촉발되는 것이다. 혹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국가간 분쟁 상황이나 국제적 여론 등을 이용해 해당 국가로부터 달러화 유출을 조장할 수도 있다. 즉, 미국은 지정학적 갈등을 이용해 유가 상승을 촉발시켜 원유수입국들의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거나,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달러 유출을 심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레이쓰하이 2014, 114).

그로 인해 해당국가는 유동성 금융 위기와 최악의 경우 국가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은 국가부도에 처한 해당국가에 IMF 등을 통해 구조조정 및 미국 금융자본에 대한 보다 폭넓은 개방을 강요한다. 금융위기 이후 해당 국가 역시 달러를 보다 많이 비축함으로써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하려는 양태를 보인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연쇄반응을 일으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시키는 것이다(곽노완 2008, 100-102).

실제로, 미국이 타국에게 금융시장 개방 압력을 본격화하는 1980년대 이후 국제적 외환위기(1995 멕시코, 1998 동아시아, 2002 아르헨티나 등)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미국이 일본에게 엔화가치 하락을 유도한 1995년 '역플라자 합의'의 부정적 결과이기도 하였다. 엔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일본 제조업의 이윤 상승은 그 경쟁국이었던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대외 수출에 타격을 가하고 그 결과 외환보유액의 감소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촉발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IMF를 통한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대외 자본 개방을 요구하였던 것이다(로버트 브레너 2007, 172-175/ 199-214).

중국이 신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 구성국이며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중국 역시 미국의 금융위기를 활용한 달러 패권 전략에 근본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중국 역시 자국이 보유한 막대한 미 국채를 활용해 대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대규모 미 국채 보유로 인해 중국의 대미 취약성이 오히려 증가된 측면이 있다. 즉, 중국이 미 국채를 대량 투매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은 곧 미 국채 가치의 폭락을 초래해 중국의 자산 가치를 동시에 폭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미 국채 등 달러화 자산을 대량 투매할 경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절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동일한 맥락에서, 중국의 미 국채 대량 매도로 인한 달러의 환율 절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감소시켜 미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현재 ‘달러의 덫(Dollar Trap)’에 갇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Wei Li 2012, 116-119; Krugman 2009).

2. 중국의 대응과 일대일로

중국이 합리적이라면, 달러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은 ①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통한 국제적 유동성 위기 대비, ② 내수시장을 확대해 과도한 수출지향형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조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③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근원적으로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가지는 특권과 그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제기한 일대일로는 이러한 목표와 부합되는 정책 구상이라 할 수 있다.

1) 동아시아 지역 협력과 그 한계

중국은 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직후부터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금융협력에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1999년부터 정례화된

ASEAN+3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0년 창설된 회원국간 통화스왑 제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의 수립에 있어서도 일본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미국을 배제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 연대라는 사실은 달러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시키려는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드러낸다. 특히, ASEAN+3 회원국들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CMI의 자금 규모가 작고 또한 그 대출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0년 CMI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간 협정(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으로 확대 발전시켰다. CMI가 양자간 통화스왑인데 비해 CMIM은 싱가포르에 공동기금을 관리하는 기구(AMRO)를 마련하고 동아시아 금융위기사 전면적인 금융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강화된 동아시아 금융기구라 할 수 있다. 중국이 일본과 함께 CMIM의 최대 분담금 국가(각각 32%, 한국 16%)라는 사실은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추진 의도를 드러낸다(이왕휘 2011, 54-57; Wei Li 2012, 126-127).

그러나 중국의 달러에 대한 취약성이 동아시아 금융 협력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CMIM의 창설과 역내 국가간 통화스왑 확대가 금융위기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역내 전통적인 경쟁국가인 중일 양국의 '실질적' 협력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일본 및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계는 달러화에 대항한 동아시아 금융 협력 기체의 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역외국가를 배제한 ASEAN+3 기체의 유지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를 동아시아 정상회담(East Asia Summit)에 포함시켜 중국을 견제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Wei Li 2012, 129-130).

사실, 동아시아 금융협력 기제가 역내 국가간 이익 충돌로 인해 강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은 유럽연합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2010년 이후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금융위기의 대응 과정에서도 독일과 프랑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EU 차원의 단합된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럽 최대 무역흑자국인 독일은 유로존 위기를 해당 국가들의 방만한 채무구조로 인식하고 구제금융의 대가로 구조개혁을 요구한 반면 프랑스는 독일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향후 유로존의 주도권이 독일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하였던 것이다(이왕휘 2011, 64-68; Schwarzer 2015).

한편, 미국이 자국을 배제한 동아시아 금융 협력기제를 과연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역시 존재한다. 그러한 상황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달러 의존을 약화시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일 동맹 기제를 강화함으로써 한중일 3국의 대미 '합중' 가능성을 견제하려는 합리적 동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9년 9월 집권한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정권의 퇴진 과정은 이를 명확히 뒷받침한다. 하토야마 정권은 미일지위협정 개정,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현외 이전,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수립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문제 등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미일관계가 경색됨으로써 결국 하토야마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였던 것이다(마고사키 우케루 2013, 355-360).

더욱이 미국은 동아시아 각국간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이용해 균형자로서 자국의 위상을 과시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 역시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오바마 정부는 센카쿠 열도(조어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중일간 분쟁 발발시 미일 동맹에 입각한 대일 안보의무를 확약하고 있는 것이다(McCurry and Branigan 2014).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한 한국내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배치 결정

역시 지역 안보 문제를 활용해 역내 국가들을 달려 경제권으로 묶어두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현재 한국이 위안화의 국제 금융허브를 자처하는 상황(연합인포맥스 2014)에서 미국은 북핵문제라는 안보 문제를 활용해 동맹국 한국을 제어하려는 합리적 동인이 있는 것이다(박홍서 2016).

2) 내수 확대 및 위안화 국제화

동아시아 국가간 금융협력이 국가간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중국으로서는 보다 독립적인 전략을 통해 달려 패권에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내수시장 확대를 도모해 수출의존형 경제발전 구조를 변화시키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미국 시장에 취약한 현재의 대외무역 구조를 개선하며, 보다 근원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려는 전략 등이 그것이다(Hung 2013, 1359).

우선, 중국의 내수 확대 전략은 중국의 인적,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현재 중국의 인구는 13억 6,748만명으로 EU 인구(5억 1,394만명)의 2.7배에 달하며, 영토크기는 9백 59만 평방킬로미터로 EU(4백 32만 평방킬로미터)의 2.2배에 달한다. 중국은 내수만으로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것이다.

중국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내수 확대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확대를 경제목표로 설정하고 소위 '가전하향(家電下鄉)'과 '자동차하향(自動車下鄉)' 정책을 통해 이들 품목의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를 장려하고 있다. 2010년 공산당 17기 5중전회에서 발표된 12차 5개년 계획(2011-2015)은 내수확대 정책을 보다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12.5 기간 주민소득을 2배로 확대함으로써 2007년 GDP대비 주민소득인 39.7%을 50%로 증가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아울러, 주거, 의료, 양

로, 그리고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호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도농간 소득격차의 감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장윤미 2011, 80-89; 최태욱 2011, 159-167).

2015년 공표된 13차 5개년 계획(2016-2020)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현 경제상황이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또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되는 ‘신상태(新常态)’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이러한 전제 속에서 소득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강 사회 건설을 목표로 주민소득을 2010년 대비 2배로 높이며,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 및 농업현대화를 통한 지역간, 계층간 격차의 해소,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내수 진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习近平 2015; 서창배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의 도시화 정책은 중국의 내수 시장을 진작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현재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55.6%로 신브레튼우즈 체제내의 일본(93.5%) 및 한국(82.5%)에 비해 현격히 낮은 상황이다(CIA 2016). 중국의 도시화 비율이 1% 상승할 때마다 수요가 6조 6000억 위안씩 창출돼 10조 위안의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은 도시화 정책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아울러 도시화 전략아래서 수행되는 농촌 토지의 ‘화폐화’ 역시 농촌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레이쓰하이 2014, 283-287).

물론, 도농간 격차를 해소해 내수를 확대하려는 전략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농업현대화, 도시화, 호구제도 개선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전략은 임금을 상승시켜 농촌으로부터 공급된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던 연해지구의 수출 산업 부문에 경제적 부담을 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산업 부문은 임금 상승에 따른 보상

을 요구한다거나, 노동자 해고 요건을 강화한 '신노동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Hung 2013, 1356).

중국은 내수 확대 전략과 아울러 보다 장기적인 맥락에서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이 과정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도모해 달러 패권에 대응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위안화가 국제무역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중국이 달러에 대한 취약성을 근원적으로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레이쓰하이 2014, 318-323). 일대일로는 이러한 전략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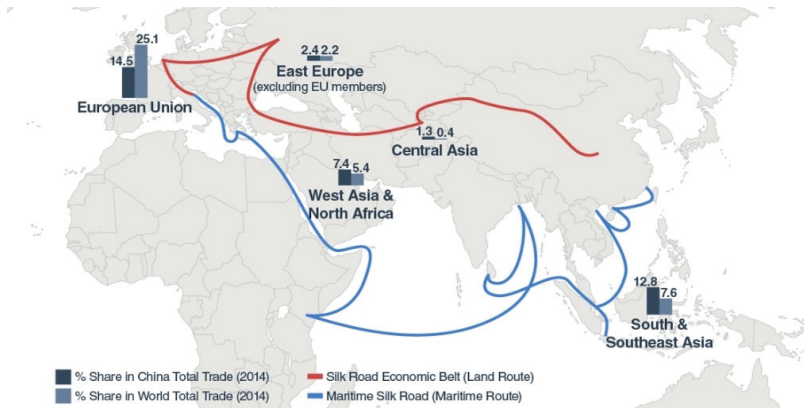
일대일로는 지역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유럽에 이르는 5개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선 실크로드 경제대는 ①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 ②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르시아만 및 지중해, ③ 중국-동남아-남아시아-인도양 방향이며, 해양 실크로드는 ④ 중국-남중국해-인도양-유럽, ⑤ 중국-남중국해-남태평양 방향이다. 일대일로는 이러한 지역적 범위안에서 중국과 연선국가간 소위 "5통"을 목표로 한다. 즉, 일대일로는 구성원간 ① 정책 소통(沟通), ② 인프라 연통(连通), ③ 무역畅通(畅通), ④ 금융협력과 자금 융통(融通), ⑤ 사회 및 문화교류에 관한 민심 상통(相通)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연선국가들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임을 감안하면, 일대일로는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제 2의 개혁개방 전략이라 할 수 있다(卢锋 外 2015, 12/19).

특히, <그림 5>이 보여주듯이, 중국과 연선국가들 간의 무역이 2014년 현재 중국 전체 무역의 38.4%에 달하고 있는데, 이를 동 기간 중국의 대미무역 비중인 25.1%과 비교해 보면(World Bank 2016), 연선국가들과의 협력이 미국 시장에 대한 중국의 취약성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사실, 수출시장 다변화가 대미 시장에 대한 중국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일정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대외 무역의 달

러화 결제가 지속되는 한 중국은 달러의 유동성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이 수출 시장 다변화와 동시에 필수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정책 목표인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발표 이전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미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2009년 위안화 무역결제율 상하이, 광저우, 선전, 주하이, 동관(东莞)에서 시범 실시한 이후 위안화 무역결제 지구를 중국 전역 및 해외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36억 위안이었던 위안화 무역 결제액이 2015년 현재 9조 6천억 위안으로 무려 3천배 가량 증가하였다. 아울러, 2010년부터 홍콩을 필두로 하여 타이페이, 싱가포르, 서울, 런던 및 파리 등에 위안화 역외 거래시장을 개설하였다. 또한, 중국은 위안화 채권을 2007년 홍콩에서 최초로 발행한 이후 프랑스, 스위스, 독일, 싱가포르 등에 위안화 채권시장을 개설하였다. 그 결과 2015년 7월 현재 외국인의 위안화 채권 보유액(8천억 위안)은 전체 위안화 채권중 1.79%를 차지하여 2011년의 0.24%에서 8배 성장하였다(韩玉军·王丽 2015, 42-44).

<그림 5> 일대일로 지역의 무역 비중⁹⁾



뿐만 아니라,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통화스왑 역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중국과 타국의 통화스왑이 달러교환이었다는 사실과 달리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스왑은 위안화와 타국 통화의 직교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화 추진에 따라 위안화는 2015년 IMF의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에 포함되었으며, 2016년 현재 세계 2위의 용자화폐, 세계 5위의 지불화폐, 그리고 세계 7위의 보유화폐로 성장하였다(觀察者 2016; Garcia-Herrero and Xia 2013).

이러한 맥락에서, 일대일로는 위안화 국제화를 강화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전략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그 자금 조달 수단인 AIB를 통해 위안화를 연선국가들과의 무역뿐만 아니라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개발 등에 사용토록 유도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위안화의 상당수 거래가 중국과 인접국에 한정된 '주변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대일로는 위안화 거래의 범위를 연선국가로 확대하려는 '지역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韓玉军·王丽 2015, 46-47).

3) 일대일로의 안보 전략

일대일로의 성공 여부는 결국 일대일로의 지리적 공간에 대해 중국이 얼마만큼의 정치·군사적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중국이 아무리 일대일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지대내의 경제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일대일로는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정치·안보 능력은 일대일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종의 '필

9) Pronina 2016.

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안보 능력이 달리 패권의 구조적 기반이 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연선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일대일로상의 지리적 요충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중국은 기존의 '상하이 협력기구'를 기반으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실크로드 경제대의 지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자국의 경제발전 구상이 일대일로에 연결될 경우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대일로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Putz 2016).

<그림 6> 중국의 해상 통로 확보¹⁰⁾



특히, <그림 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국은 해상 실크로드 수행을 위한 수송로 확보에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중앙아시아 내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추진하는데 있어 동 지역에서 전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러시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해상 실

10) 정의길(2016)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57723.html>

크로드 구축에 보다 전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윌테켄 외 2015, 85-86). 실제로, 중국은 2012년 스리랑카 함반토타(Hambantota)항, 2013년 파키스탄 과다르(Gwadar)항, 방글라데시 치타공(Chittagong)항, 미얀마 시트웨(Sittwe)항에 대한 건설개발 혹은 운영권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2015년 태국과 크라 운하(Kra Canal) 건설에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통제력이 강한 남중국해의 말라카 해협을 우회해 인도양으로의 직접적 통로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김애경 2016, 125-126).

중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인도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잠수함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스리랑카 콜롬보 항과 파키스탄 카라치(Karachi) 항에 최초로 정박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2016년 현재 아덴만에 위치한 지부티(Djibouti)에 사상 최초로 해외 주둔 군사기지를 건립하고 있다. 아덴만이 전세계 무역 물동량의 20%와 중국의 원유 수입량중 절반이 통과한다는 측면에서 지부티 군사기지 건설은 일대일로 추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지부티 이외에도 중국은 향후 파키스탄의 카라치, 오만의 살라라(Salalah), 마다가스카르 북동쪽에 위치한 세이셸 공화국(Seychelles)에 추가적인 군사기지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위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전략으로 통칭되는 인도양 해안의 요충지 확보 전략은 중국의 경제 이익 확보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Baker 2015; Page 2016).

한편,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남중국해는 인도양과 더불어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일종의 '약한 고리'라 할 수 있다. 즉, 남중국해는 일대일로의 출발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있어서는 군사적 취약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오바마는 2016년 5월 베트남 방문시 무기금수 조치

를 해제하고 남중국해에서 “대국이 소국을 위협하면 안 된다(big nations should not bully smaller ones)”고 중국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Homels 2016). 동시에 미국은 ‘통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도서화에 대해 군사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Schmidt 2016).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위협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일대일로의 성공적 진행은 중국의 대미 취약성 완화 및 궁극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가능케 해 달러 패권에 근원적인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상술한 달러-안보 연계 전략을 통해 달러 경제권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으로서는 일대일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을 무력화시켜야 될 합리적 동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만약 남중국해 전체가 미국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다면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구상은 그 지리적 초입부터 심각한 장애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를 포괄하는 ‘구단선(九段線)’을 설정해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남중국해 무인도서의 인공도서화 및 군사시설물 설치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전략적 사고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环球时报 2015).

IV. 결론 및 전망

본 논문은 일대일로를 달러 패권에 대한 중국의 취약성 완화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미국은 일본을 위시로 하는 동아시아 산업국가들에게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내하는 대가로 그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에 재투자하게 함으로

써 국내 경기를 부양하는 경제전략을 수행해 왔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우월한 정치·안보적 능력을 기반으로 이러한 신브레튼우즈 체제를 유지·강화해 왔다.

1970년대 미중관계 개선 및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이 신브레튼우즈 체제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소련 위협을 견제하고 아울러 미국 자본을 이용한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달러 경제권하의 경제발전 전략은 중국의 대미 경제 취약성을 그만큼 심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중국은 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달러의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내적으로 소득 증대 및 도시화 추진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며, 대외적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 및 보다 근본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이러한 전략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무역 시장을 다변화하고 아울러 연선국가들과 무역, 인프라 건설, 에너지 사업 등의 협력에 있어 위안화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로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는 성공할 것인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한 국가의 통화가 국제적인 통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해당 통화의 자유태환이 가능하고, ② 해당 국가의 국제수지가 적자를 유지해 대외적으로 통화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며, ③ 강력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장이 존재해야 한다. 중국은 이를 위해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 지대(上海自由贸易区: Shanghai Free Trade Zone)를 구축하고 동지역내에서 위안화 자유태환을 개시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에 나서고 있다(후수리·우징렌 외 2016, 227-234). 그러나 중국이 막대한 무역흑자국이라는 사실과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

한다는 사실, 그리고 위안화 표시 채권 규모가 달러, 유로화, 엔화 채권에 비해 상당히 협소하다는 사실 등은 위안화가 국제화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Prasad 2014, 20-243).

이러한 경제적 기준 이외에 한 국가 통화의 국제화는 결국 궁극적으로 그 국가가 주변국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이 강화된 배경에도 미국의 안정적 금융시장 기제의 완비라는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결국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형성된 미국의 정치, 군사, 사회, 문화 제반에 대한 주변국들의 신뢰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안화의 국제화 및 궁극적인 기축통화화 역시 단순히 경제력뿐만 아니라 상술한 구조적 힘(생산, 안보, 금융, 지식)을 중국이 보유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즉, 중국이 타국에 대한 단순한 영향력을 넘어 타국들을 위한 ‘게임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을 때 ‘위안화 굴기’가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원테권(2015, 95-98)이 강조하듯이, 일대일로가 현재와 같은 단순한 ‘인프라 발전주의’를 기반으로 해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사회정의 담론이 결여된 인프라 발전주의는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다면, 일대일로는 동양 농업사회에 배태되어온 ‘상호상생’ 가치와 같이 인류가 보편타당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정의 담론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전지구적인 발전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향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화평발전이라는 대전략 속에서 신중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중국해 등에서의 공세적 행동은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가들에게 ‘중국위협론’을 확산시켜 오히려 미국의 달러-안보 연계전략의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냉전기 미국의 마셜플랜이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마셜플랜이 대소 동맹이라는 안보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구속적' 형태의 발전 계획이라면, 일대일로를 통한 위안화 경제권 확대는 소위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라는 보다 유연한 국가간 관계속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동맹관계와는 달리 공동의 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결속력은 떨어지지만 그에 비례해 구성원간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중국은 향후 일대일로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유연한 국가간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곽노완. 2008, “달러지배체제의 위기와 21세기 코뮌주의의 한국경제 비전,” 『진보평론』, 제 38호.
- 김애경. 2016,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분석: 제기배경, 추진현황, 함의고찰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29호.
- 니얼 퍼거슨. 2010, 김선영 옮김, 『금융의 지배』(서울: 민음사)
- 데이비드 하비. 2016, 최병두 옮김, 『신제국주의』(서울: 한울)
- 레이쓰하이. 2014, 허유영 옮김, 『G2 전쟁』(서울: 부키)
- 로버트 브레너. 2007, 『붐 앤 버블: 호황 그 이후, 세계 경제의 그늘과 미래』(서울: 아침이슬).
- 마고사키 우케루. 2013, 양기호 옮김.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일본의 사례, 1945-2012』(서울: 메디치)
- 박홍서. 2009, “1949년 이후 중국 외교의 전개와 변화 : 팍스아메리카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참여,” 『중국연구』, 47.
- _____. 2016, “미-중 카르텔과 사드, 남중국해,” 『위커스』, 20호
- 배리 아이켄그린. 2011, 김태훈 옮김, 『달러제국의 몰락』(서울: 북하이브)
- 백창재·조형진. 2012, “신브레튼우즈 체제와 미중관계의 경제적 구조,” 『한국정치연구』, 21(2).
- 서정경. 2015,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55집 2호.
- 서창배. 2015, “중국공산당 제18기 5중전회의 결과와 13.5규획,” CSF 중국전문가포럼, 11월 10일.
- 연합인포맥스. 2014, “최경환 ‘위안화 직거래, 허브화 기틀될 것,’” 12월 1일.
- 원동욱. 2015, “중국의 지정학과 주변외교: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 17집 2호.
- 원테권 외. 2015, “중국의 ‘일대일로’는 평화발전의 이념인가,” 『창작과 비평』,

43(3).

- 이남주. 2015, “중국의 서진전략과 일대일로,” 『황해문화』, 12.
- 이왕희. 2011,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서울: 논형)
- 장윤미. 2011, “세계금융위기와 중국의 발전전략,” 『중소연구』, 34권 4호.
- 정의길. 2016, “중국 첫 해외기지 지부터 본궤도 올라,” 『한겨레신문』, 8월 21일.
- 최태욱. 2011, “동북아의 내수중시경제로의 전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서울: 논형)
- 한영빈. 2012,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II의 특징과 메커니즘 - 화폐의 제도·정치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5(1).
- 후수리·우정렌 외. 2016, 이지은 역, 『뉴노멀 중국』 (서울: 유비온)
- 郝晓伟·陈侠. 2015, “美国经贸战略新变化及中国应对策略,” 『商业研究』, 总第458期.
- 冯宗宪. 2014, “一带一路”构想的战略意义,” 『光明日报』, 10月20日.
- 观察者. 2016, “中行董事长:人民币去年跨境结算量达9.6万亿 同比增长25%,”
http://www.guancha.cn/economy/2016_03_19_354417.shtml
- 国家外汇管理局. 2016, The time-series data of China's Foreign Exchange Reserves, <http://www.safe.gov.cn/>
- 韩玉军·王丽. 2015, “‘一带一路’推动人民币国际化进程,” 『国际贸易』, 2015年 第6期.
- 环球时报. 2015, “我核心利益若遭严重挑战 南海岛礁可迅速军事化,” 10月30日
- 环球网. 2016, “‘一带一路’绝非中国版‘马歇尔计划,’” 4月22日.
- 刘亚洲. 2010, “西部论,” 『凤凰周刊』, 8月5日. http://blog.sina.com.cn/s/blog_556a474801019u2h.html
- 卢锋 外. 2015, “为什么是中国?——一带一路的经济逻辑,” 『国际经济评论』, 2015年 第3期.
- 人民网. 2015, “专家解读中国走和平发展道路: 是对‘中国威胁论’的有力回击,” 9

月3日.

习近平 2015, “关于《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的说明,” 新华网, 11月3日.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5-11/03/c_1117029621.htm

新华网. 2015, “王毅: ‘一带一路’不是中方‘独奏曲’而是各方共同参与的‘交响乐’,” 3月8日.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5lh/2015-03/08/c_127556696.htm

薛力. 2015, “中国需要亚洲版大国外交,” 《金融时报》中文网, 2月9日.

<http://www.ftchinese.com/story/001060539?full=y>

王缉思. 2012, “‘西进’, 中国地缘战略的再平衡,” 『环球时报』, 10月17日.

中国商务部. 2016, “2015年美国货物贸易及中美双边贸易概况,”

http://countryreport.mofcom.gov.cn/record/view110209.asp?news_id=48094

Baker, Benjamin David. 2015, “Where Is the ‘String of Pearls’ in 2015?” *The Diplomat*, October 5.

CIA. 2016, The World Fact Books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au.html>

Dooley, Michael/ David Folkersts-Landau/ Peter Garber. 2009, “Bretton Woods II Still Defines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Pacific Economic Review* 14, no. 3

Garcia-Herrero, Alicia and Le Xia. 2013, “China’s RMB Bilateral Swap Agreements: What explains the choice of countries?” BBVA Research, Working Paper, No. 13/18, May 27.

Gilpin, Robert.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mels, Oliver. 2016, “Obama backs Vietnam in South China Sea dispute with Beijing,” *The Guardian*, May 24.

- Hung, Ho-feng. 2013, "China: Saviour or Challenger of the Dollar Hegemony?" *Development and Change*, Vol. 44, No. 6.
- Kam Wing Chan, 2010,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Migrant Workers in China: 'There is No Future as a Labourer; Returning to the Village has No Mea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34.3
- Kissinger, Henry. 2011, *On China* (New York: The Penguin Press).
- Krugman, Paul. 2009, "Chinese New Year," *The New York Times*, December 31.
- McCurry, Justin and Branigan, Tania. 2014, "Obama says US will defend Japan in island dispute with China," *The Guardian*, April 24.
- Norloff, Carla. 2014, "Dollar hegemony: A power analysi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21 No. 5.
- Page, Jeremy. 2016, "China Builds First Overseas Military Outpost," *Wall Street Journal*, August 19.
- Prasad, Eswar S. 2014, *The Dollar Trap*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ronina, Lyubov. 2016, "Chinese Banks With Global Dreams Eye Middle East Mega Bonds," *Bloomberg*, July 29.
- Putz, Catherine. 2016, "China Pushes One Belt, One Road in Central Asia," *The Diplomat*, May 24.
- Schwarzer, Daniela. 2015, "French comeback eposes rift in eurozone core," *Financial Times*, July 11.
- Schmidt, Michael S. 2016, "In South China Sea Visit, U.S. Defense Chief Flexes Military Muscle," *The New York Times*, April 15.
- SIPRI. 2016,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http://books.sipri.org/files/FS/SIPRIFS1604.pdf>

- Swaine, Michel. 2015, "Chinese Views and Commentary on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China Leadership Monitor*, No. 47.
- Stokes, Doug. 2014, Achilles' deal: Dollar decline and US grand strategy after the crisi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21, No. 5.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6, Trade in Goods with China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c5700.html>
- US Department of Treasury. 2016, Major Foreign Holders of Treasury Securities. <http://ticdata.treasury.gov/Publish/mfh.txt>
- Waltz, Kenneth. N. 1993,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2.
- _____. 2010,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g Grove: Waveland Press, Inc.)
- Wei Li. 2012, "Coping with the Dollar Hegemony: China's New Monetary Strategy and Its Implications for Regional Monetary Governance." in Mingjiang Li, ed. *China Joins global governance: cooperation and contentions* (Plymouth: Lexington Books)
- World Bank. 2016, China Imports by Country and Region 2014.
<http://wits.worldbank.org/CountryProfile/en/Country/CHN/Year/2014/TradeFlow/Import>

Abstract

Sino-US relation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China's Response Strategies
to Dollar Hegemony

Park, Hong Seo

Lectur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ngseo@hanmail.net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s a strategy to overcome its economic vulnerability to dollar hegemony. Since the collapse of Bretton Woods system in 1971, the United States has strategically tolerated its enormous current account deficit to Asian industrial countries in return for their reinvestment in the U.S. The United States capitalized on its security capability to maintain this Bretton Woods II system. China's open door policy and rapid development is a result of its entrance to such a US-led global economic structure. However, China's development strategy under the Bretton Woods system necessarily deepened China's vulnerability to the US Dollar hegemony. To address this problem, China has attempted to stimulate domestic consumption, diversify markets, and, more fundamentally, internationalize its currency Yuan.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is the epitome of this strategy with which China attempts to reduce and ultimately overcome its vulnerability to the

dollar hegemony. The future success of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depends on whether or not China can obtain other countries' trust in its political, military, and cultural as well as economic capability.

Key Words: One Belt, One Road, The US-China relations, Bretton Woods II system, Dollar hegemony,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uan

투 고 일: 2016년 08월 21일

심사완료일: 2016년 09월 20일

게재확정일: 2016년 09월 27일